



추억의 순간

두 분 碩學은 가시고

金東一

〈과총상임고문〉



77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태평양과학협회 회의 참석

이 사진은 지난 77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비치호텔에서 열렸던 太平洋科學協會(PSA : Pacific Science Association)중간회의에 세계적 석학인 故 李泰圭박사를 모시고 田豊鎭박사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했을 때 기념 촬영 한 것이다.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과학기술 협력증진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20년 하와이에서 국제적 민간과학기구로 창설된 태평양과학협회는 매 4년마다 본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간인 2년마다 중간회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57년 대

한민국 학술원이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한데 이어 79년에는 科總이 준회원으로 가입, 과학기술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87년 8월 제16차 본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다.

발리섬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추억이 새로운데 함께 갔던 두 박사께서는 작년에 모두 작고하시고 필자 혼자 남아 이 글을 쓰게 되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